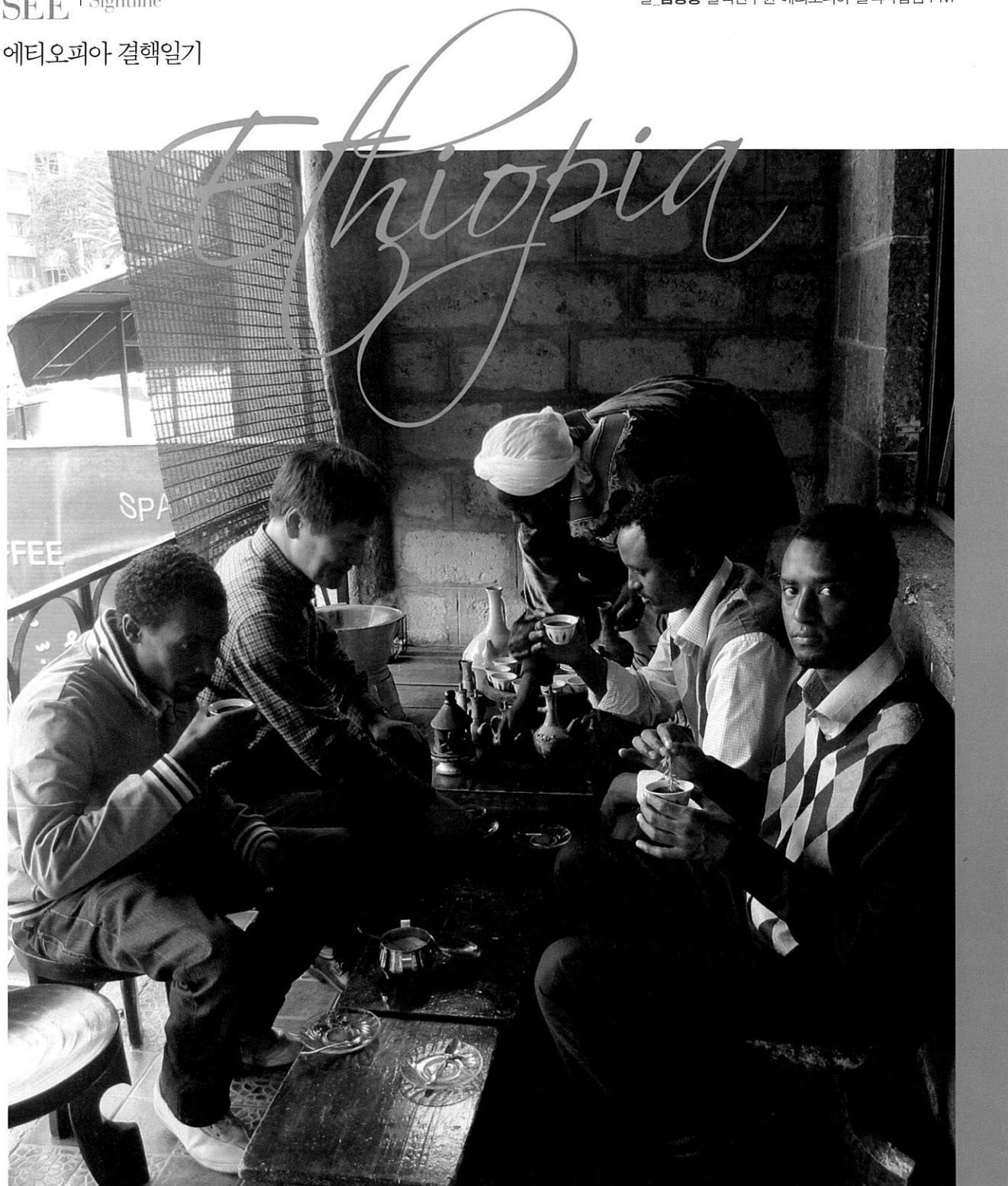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결핵일기



직원들과 커피시간

에티오피아 Addis Ababa에서 온 편지

TB환자 얼굴에 새로운 웃음 꽃 피우기까지

새로운 꽃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티오피아 Addis Ababa를 향해 날아온 지 벌써 10주가 지나갔다. 지난 8년간 개성공단에서 맺으려 했던 통일의 꽃은 후일을 기약하고 이곳에서 다시금 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 생각하며 이들 얼굴에 비쳐진 소망의 미소를 바라본다. 3년 전 이 곳에 왔던 추억을 더듬으며 추운 듯, 더운 듯, 앞 길이 창창한 듯, 답답한 듯, 낯 설은 듯, 친숙한 듯 이곳의 생활과 업무를 시작했다.



Workshop

첫 일주일은 전임 PM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인수인계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곳에서 경험한 Do와 Undo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뒤에 남은 나에게 맡기고 아쉬워하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환송식을 한 후 한국으로 떠난 후 둘째 주부터는 함께 온 청년 인턴과 현지 직원들을 데리고 쉽고도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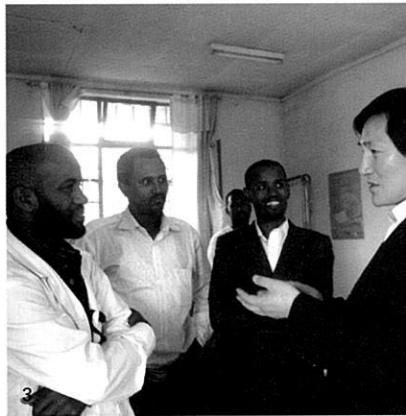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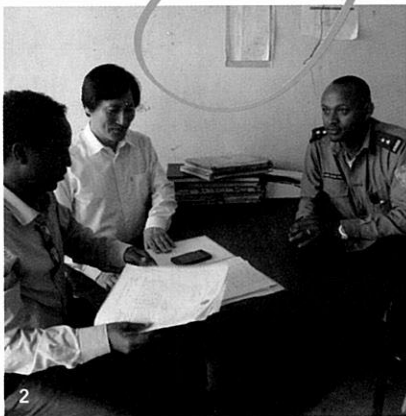
2012년 초부터 이곳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 사업을 위해서 KOICA의 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한 결핵 협회의 해외 중요한 TB Project가 시작되어 현지 인력들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여러 준비를 해왔고 최근엔 이곳 시 보건국에서 실제적으로 이동 검진 차량이 들어 와서 목표 3개 지역구; Arada(아라다), Ledeta(레데타), Addis Ketema(아디스 케테마)에서 결핵환자발견율(CDR) 10% 향상 시키고, 치료 성공률(TSR) 5%을 실행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본래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이므로 차량이 최대한 빨리 선적되어야 하고, Digital X-ray가 탑재된 차량은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이곳 통관 시 지연될 수 있는 서류들을 신속하게 준비할 것을 여러 담당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장소의 여러 상황의 현지 답사를 위해 각 지역을 부지런히 방문하여 30여 군데의 보건소 및 보건 담당 사무소 지역을 다니며 차량들이 주차하고, 진입할 수 있는 여부도 알아보았다. 3개 구의 보건 담당 부서와 부서 장들도 방문하여 이동 검진은 중요성과 협조를 강조하며 현지 보건 담당자들과 안면도 익히고 구체적 사업을 위한 현지 조사를 시행하였다. 모두들 기대에 차서 우리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다. 어떤 때는 그 곳 지역에 있는 고등 학교들도 가서 이동 검진을 소개하고, 지역 구치소도 방문하여 그들의 검진에 대해서 소개하고 결핵 감염을 예방하고, 진단할 것을 말해주었더니 반응들이 아주 좋았다. "Home to Home"이란 그들의 구호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동 검진 차량이 가서 그들의 필요를 도울 수 있다는 기대에 벅찬 마음을 가지



Bright Smile

- 1 Workshop 강연
- 2 구치소 방문
- 3 보건소 결핵실에서 의논
- 4 보건소 현장



고 피곤하고 먼 곳까지도 즐겁게 달려갔다.

에티오피아의 생활에서 놀라운 점은 이곳의 시간과 달력이 두 종류인 점이다. 우리처럼 몇 달 차이 나는 음력 정도가 아니라 2013년과 2006년이 공존하고, 낮 12시의 국제 현지 시간이 있는데 이들을 한국의 시간과 꼭 같이 저녁 6시라고 한다. 종교도, 문화도, 언어도, 생활도, 날짜도 다른 이곳에서의 복잡한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베푼 과거의 빛이 있기에 우리들은 이를 값싼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위해서 직접 사인을 해야 할 새로운 상업 은행 계좌를 만드는 몇 주간의 수고와 노력은 작전을 방해하게 하였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현지 KOICA를 여러 차례 달려가고, 기다리다 못해 늘 지연하는 담당자들을 제쳐두고 직접 매니저를 찾아가서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던 일들이 어제 같다. 어렵게 은행 계좌를 만들어졌지만 한국에서 송금이 되고 이곳에서 사업 운영 위한 자금을 인출하기까지는 또한 많은 시간을 요구되었다. 하루 이틀은 늦어도 참아주던 현지 직원들이 1주가 지나고 10일이 지나도록 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이해하고 관계 형성에 집중하였는데 보건국 국장 판투, 부 국장 게타츄, 협력 사업 책임자 한나와 빼피카두, 기타 담당자들, 우리 현지 직원들인 아스멜라쉬와 쟈가, 청년 인턴 그리고 이동 검진팀의 식구들이다. 앞으로 함께 열심히 일 해가야 할 중요한 이동검진팀은 엑스레이 담당 아베베, 검사실 담당 킨두, 간호사 네사넛과 팀장 및 진료의사 쿼라쉴이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까지 갔다 왔는지 친숙하였고 이동 검진 차량이 올 때까지는 다른 여러 지역에 파견 나가서 일하고 있다. 이들과 첫 모임에서 이동 검진 차량과 기구를 안전하고 귀하게 다룰 것과 우리의 수고가 에티오피아 보건 지침에 기여할 수 있음도 강조했다.

최근에는 우리 사업의 일선에서 도와줄 HEWs(Health Extensional Works)을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3개 구에서 선출된 300여 명의 보건요원들을 위한 3일간의 워크숍

이 진행되었다. 준비 과정에서 담당자들과 의논하는 시간엔 그들 입장을 많이 주장하였다. 우리가 세운 재정 예산 상황에 맞추기보다 그들의 전례에 따라 호텔에서 장소 빌리고, 점심 부패와 간식 포함 커피 Break 2회, 아침 오후 2회 생수 제공, 식사 시 찬음료 제공 등 호텔 패키지와 각자가 마치고 돌아갈 때 교통비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모든 일련의 협의를 마치고 몇 주 후에 계획대로 워크숍을 시행하였다. 몇 주간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주엔 호텔 사정으로 날짜를 바꾸어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매일 시작 시간은 예상대로 늦어졌지만 끝나는 시간은 거의 계획대로 되었다. 그들에게 처음으로 도입한 Teamwork 시간(Fun Time)을 만들었는데 각 구의 보건 요원들이 동 별로 나와서 상품을 바라며 열심히 자신들의 Skit, Song, performance를 하였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인상적이었다.

“과거 우리들은 한국 전쟁 위해 싸우러 갔었는데, 지금은 KNTA/ KOICA와 Dr. Kim이 결핵과 싸우기 위해서 왔노라.”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의 TB Project가 그들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협조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큰 격려의 말이었다. 많은 대가가 지불된 이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사업과 훈련 계획에 대해서 감사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에티오피아는 항구가 없어 이웃나라 지부티 항을 통해 물건이 들어오는데 6월 말 이미 도착한, 오래 기다려 왔던, 2대 이동검진차량과 그 속에 장착된 디지털 엑스레이, 형광 현미경, Gene-X-Per들이 우리들의 수고와 KOICA와 보건국과 여러 정부 부서의 도움으로 무사히 보건국까지 잘 들어와 이동 검진 사업하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여정과 단계가 놓여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그들에게 유익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니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모두가 해야 할 것 같다. 언젠가 이곳 Addis Ababa에서 많은 결핵 환자의 얼굴에 웃음의 꽃을 피우기까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나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해 달려간다. †